

## 아침세평

## 광주교육이 'AI기본교육 주권시대' 옅다

김진구



광주시교육청시민협치진흥원장

세상 많은 것이 너무나 급변하니. 이제는 '그런갑다' 한다. 잠깐 놀랬다가 당연한 듯 바로 받아들인다. 직업, 노동, 생산품, 고용구조, 사회제도 등 대부분 영역에서 생생하고 소멸을 반복하고 있다.

범부(凡夫)인 나는 운전자 없는 차를 생각하지 못했다. 인공지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비둘만큼은 인간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생각했다. 그런데 만화 같은 상상은 현실이 되고, 어떤 것은 그 이상이다.

광주시교육청의 인재양성 프로그램인 '디지털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에 참여한 학생들은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에서 첫눈에 입을 벌리게 한 것은 일상화된 무인자동차였다고 한다.

호흡하면 즉시 달려오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주는 운전자 없는 영업용 택시.

이제 광주에서도 올해부터 자율주행 차 200대가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에서 밤낮으로 달린다고 한다. 전국 최초로 '자율주행 실증도시'로 선정된 것이다. 거리에서 만나면 많이들 쳐다볼 것 같다.

비둘은 수천 년 전부터 시작됐다. 흑백 돌이 가능한 조합의 수는 우주의 원자보다 많다고 한다. 다른 것은 몰라도 비둘만큼은 컴퓨터가 인간을 이기기 어렵다고 했다.

10년 전 일이다. 서울에서 세기의 대결이 있었다. 인간 이세돌과 인공 알파고의 5전 3선승제였다. 알파고가 세

번을 먼저 이겼다. 넷째 판에서 이세돌이 180수 만에 이겼다. 허날 사람들은 백 78수를 '신의 한 수(God's Touch)'라고 했다.

2016년 3월 13일 인간이 인공지능에게 이긴 마지막 날이다. AI가 인간에게 전 마지막 날이기도 하다. 지금은 프로기사의 비둘 한수마다 AI가 흑백의 승률까지 알려준다.

2026년 새해와 함께 광주시교육청AI교육원이 출범해 개원식을 가졌다.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인공지능이 특권이 아닌 모두의 기본 권리임을 선언한다. 우리 아이들 누구나 AI와 함께 꿈꾸고 성장하는 'AI기본교육 주권시대'의 막을 힘차게 선포한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학생, 교직원, 학부모 대표와 함께 선포한 선언문이다.

이는 인공지능 시대를 이끌어 갈 포용적 정의 인재 양성의 다짐이다.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교육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보편적이고 체계적인 AI 교육 기회를 제공해 인공지능 격차를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리고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 학부모, 시민까지 연인원 3만여명이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 대상에 따라 주중, 주말과 방학, 연중, 특별프로그램으로 세분화돼 있다.

주중에는 모든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 교과 및 창의 체험활동과 연계해,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자유학기제 및 학교자율교육과정과 연계해 3시간씩 교육을 받는다. 인공지능과 로봇, 코딩 놀이터, 자율주행, 기후환경, 헬스케어, 문화예술 중에서 선택한다.

주말과 방학 때는 맞춤형 심화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AI-SW교실'은 초6, 중2~3, 고1~2 학생을 대상으로

로 체험 및 탐구활동을 하고, '학부모와 함께하는 AI-SW 캠프'는 생활 속 AI활용과 교구 체험활동을 한다. 'AI+X 교과융합 프로그램'은 학교급이나 수준별로 진행되는 미래전문가 과정이고, 12학급 규모의 초·중 정보영재반도 운영한다.

연중 프로그램은 빛고을온학교와 협력해 고교학점제와 연계한 정보·AI융합과목을 개설하고, 학생 R&E 동아리 등을 운영해 인공지능 관련 대학 진학률과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높인다.

마지막으로 참여자가 급증하고 있는 특별프로그램이다. '록 톡 AI콘서트'는 연 3회 시민을 대상으로 전문가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형식의 강좌이다. 'AI-SW체험축 전'은 매년 학생, 교직원, 시민이 수만 명씩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로 학교, 기업과 기관이 부스를 운영하여 급변하는 인공지능 세상을 펼쳐 보인다.

이처럼 학생들은 최첨단 인공지능을 배우고 체험하면서 윤리적인 사고까지 체득하게 된다. 교직원과 학부모, 시민에게는 접근성이 넓혀져 일상화하도록 한다. 이는 광주교육의 또 다른 혁신으로 지역 경제 성장과 국가 AI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게 된다.

광주시교육청AI교육원의 출범은 단순히 직속 교육기관의 재탄생이 아니다. 전국 최초로 설립된 AI교육 실행 전문기관이다. 광주와 전남에 국가 AI컴퓨팅 센터, 국가 NPU기반 컴퓨팅센터 등 다양한 인공지능 관련 산업시설이 들어서 AI 중심 허브로 도약하고 있다. 이러한 대전환의 시기에서 AI교육원은 산업을 주도하는 정의적 인재 양성의 산실이 될 것이다. AI산업 인프라는 경제 성장을, 교육 인프라는 인재 공급을 담당하게 되는 선순환 구조의 결정체이다. 광주교육이 대한민국 최초로 'AI 기본교육 주권시대'를 열었다. 그 중심에 광주시교육청AI교육원이 있다.

## 사설

## 광주 가전기업 고부가가치산업 전환 절실

광주 가전기업의 고부가가치산업으로의 전환이 절실히 한다. 대우위니아 사태 이후 생산과 고용 불안이 현실화되면서 기존 중심구조인 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주문자 상표부착 생산)의 한계가 노출된 데 따른 것이다.

사실 지역 가전산업은 오랜 기간 OEM 생산기지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단가 압박과 물량 변동에 따른 수익성 한계가 누적되면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았고 특히 대기업 등 단일 거래처 의존도가 높아 외부 변수에 대한 대응력이 취약한 실정이었다.

2023년 대우위니아 계열사 법정관리사태는 결정타가 됐다. 이번 일로 협력업체 피해가 346개사·1146억원 규모로 확대되는 등 생산·고용 불안은 점차 확산돼 갔다.

여기에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와 관세 부담 증가, 대기업 생산 물량 조정까지 겹치면서 단순 생산 중심 구조로는 위기 대응에 한계가 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 때문에 대다수의 지역 가전업체들은 사업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실제 광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최근 지역 가전기업 13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전체 기업의 72.4%가 사업전환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제조사가 제품을 기획·설계·생산까지 모두 맡고, 발주사는 브랜드만 붙이는 ODM (Original Design Manufacturing)이나 제조업체가 제품의 설계·제조·마케팅, 판매까지 모두 담당하는 OBM (Original Brand Manufacturing)으로의 전환을 원한 것이다.

이들 중 절반 이상(53.0%)은 급격한 구조 변화보다는 기존 사업 비중을 유지하면서 관련 분야를 추가하는 단계적 접근 방식을 선호했다.

이는 기존 생산 기반을 활용한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단기간내 대규모 전환보다는 점진적인 구조 변화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환 과정의 문제점으로는 신규 판로 개척, 자금 조달, 신규 업종에 대한 전문기술·정보력 부족, 인력 확보 곤란 등을 꼽았다.

이에 따라 이들의 사업 전환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게 광주시 차원의 기업지원과 고용환경 개선, 판로 개척과 마케팅 등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 전남에 국립김산업진흥원 설립 필요하다

김산업 중심지 전남에 국립김산업진흥원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 산업의 수출·생산 확대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일원화된 정책·연구·지원 체계'를 갖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남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JIN 안포그래픽-전남 김 세계에 자리매김'이라는 자료를 보면 2024년 기준 국내 김 생산량은 55만t으로 집계됐는데 이중 전남이 43만t으로 전체의 77.5%를 차지했다. 전남은 김 양식이 1600년대 광양 태안도에서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생산 기반과 양식 기술을 주도하며 산업 중심지 역할을 이어오고 있다. 김산업의 상장성과 실질을 모두 갖춘 지역이 전남이라는 얘기다.

김은 이제 단순한 수산물을 넘어 '김은 반도체'라 불리며 대표적인 수출 흐름이 됐다. 2024년 수출액이 9억9700만 달러로, 5억8900만 달러에 그친 침차캔을 크게 웃돌았고, 식품 수출 1위 품목인 라면의 12억4800만 달러와도 격차를 좁히고 있다.

2015년 이후 지금까지 수출이 연평균 13.1%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는 지난해에도 이어져, 11월 기준 누적 수출액이 10억4000만 달러를 넘어섰다고 한다. 1달리당 1430원의 환율을 적용할 경우 1조4872억 원이자 된다.

수출 대상국은 164개국에 달했으며 이중 미국이 2억3000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일본 2억2000만 달러, 중국 1억 달러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김 산업의 고공행진은 전남 지역경제에도 직접적인 파급 효과를 냈다.

2024년 전남의 김 가공품 생산액은 1조4825억원, 수출액 3억7000만 달러였으며 현재 목포·해남·고흥 등을 중심으로 가공·유통 거점이 형성돼 있다.

농수산식품 부동의 수출 1위로 반도체에 비견되는 국가 전략 산업이 된 것이다.

하지만 김 종자 개발부터 연구개발, 가공, 수출까지 전 주기를 담당하는 컨트롤타워가 부재해 수은 상승에 대응한 품종 개발, 육상체계화 등 향후 과제에 대한 고민과 만족하지 않다. 이에 따라 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남에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 기고

## 지역에서 창업한다는 것, 그곳에서 시작되는 혁신

최진영



㈜원스 대표

지역에서 청업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많은 이들이 말한다. "서울이 아니면 어렵다"라고 투자도, 인재도, 기회도 모두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현장에서 직접 청업을 해보면 내가 내린 결론은 조금 다르다. 지역 생태계는 오히려 '문제와 기회가 동시에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곳'이다. 그리고 청업은 언제나 문제에서 시작된다.

나는 아동의 인여발달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현장에서 만난 부모들은 늘 비슷한 질문을 던진다. "조금 더 일찍 알 수는 없었을까요?", "왜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나요?", "어디에 가야 제대로 된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이 질문들은 단순한 개인의 고민이 아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할 거대한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 말은, 이곳이야말로 새로운 해법이 가장 절실했던 곳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나는 이 지점에서 청업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됐다. 청업은 단순히 새로운 서비스를 만드는 일은 아니라. 사회가 외면해온 질문에 다시 답하는 일이라는 것을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청년들은 "지역에서 청업하면 성장하기 어렵다"는 말을 듣는다. 물론 투자 환경, 네트워크, 인재 수급 측면에서 수도권과의 격차는 분명 존재한다. 그러나 나는 오히려 반대로 묻고 싶다. '정말 문제가 없는 곳에서 혁신이 탄생할 수 있을까?'

실리콘밸리가 성장한 이유는 자본이 많아서만이 아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할 거대한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역 역시 마찬가지다. 아직 기술과 시스템이 달지 못한 영역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청업가가 도전할 수 있는 여지도 훨씬 넓다. 중요한 것은 '어디서 하느냐'보다 '무엇을 풀고 있느냐'다.

다행히 최근 지역 청업 생태계는 분명히 변하고 있다. 지역 자체, 대학, 공공기관, 대기업, 투자기관이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고, 사회문제와 기술을 결합한 다양한 시도들이 등장하고 있다.

예전에는 "왜 청업을 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면, 이제는 "어떤 문제를 풀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는다. 이 변화는 작지만 매우 중요한 전환이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도 많다. 지역의 청년 청업가들은 여전히 '증명되지 않은 가능성'이라는 이유로 더 많은 벽 앞에 선다. 그래서 더 필요한 것은 단기 성과만을 촉진하지 않고 실패를 허용하며 축적을 응원하는 생태계다.

청업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10년, 20년을 내다보는 마리온이기 때문이다.

나는 지역에서 청업하기로 한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 다. 오히려 이곳이기에 더 절실히 문제를 바라볼 수 있었고, 더 본질적인 질문을 불자고 했다.

그리고 언젠가 "지역에서 시작된 이 기술과 이 서비스, 이 모델이 전국과 세계로 확장됐다"는 이야기가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풍경이 되기를 바란다.

청년이 떠나는 지역이 아니라, 청년이 문제를 해결하며 남은 지역. 지원만 받는 공간이 아니라, 해답을 만들어내는 생태계.

지역은 충분히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문제를 풀고 있는 수많은 청년 청업가들의 선택에서 시작되고 있다.

김승일과 함께 혼성 4인조에 나섰다.

전남 선수단은 6개 종목에 83명이 참가했다. 지난해 금메달 2개, 은메달 3개, 동메달 3개를 따내며 종합 9위(8396점)를 차지한 전남은 이번 대회에서 4위를 목표로 한다.

전남 선수단은 참가선수 41명 중 21명이 현재 취업선수로 활동하고 있으며, 스기와 빙상 종목은 지난해 수준의 점수 확보를 목표로 한다. 특히 컬링(휠체어)은 4강 진출을 노리고, 남자 크로스컨트리 스キー 최종형 선수는 지난해에 이어 3년 연속 금메달 도전에 나선다.

전국장애인동계체전은 신체의 한계를 극복한 이들이 참가하는 감동의 무대다. 특히 광주와 전남은 사실상 동계스포츠 불모지나 다름없다. 열악한 예산과 척박한 훈련 환경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선수단은 한계를 딛고 자신의 꿈과 열정을 펼치고 있다. 불리한 환경과 편견을 이겨내 장애인 선수들의 활동은 그 자체가 기록이자 기적이다.

인간 승리라는 드라마를 쓰고 있는 선수들이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많은 이들의 관심과 격려가 절실히다.

## 최재수첩

## 전국장애인동계체전 선수단에 관심과 응원을

송하종



문화체육부 기자

국내 최대의 장애인 동계스포츠 축제인 '제23회 전국장애인동계체전'이 강원도 일원에서 펼쳐지고 있다. 지난 27일 시작해 30일까지 열리는 이번 동계체전은 알파인스키, 스노보드, 크로스컨트리스키, 바이애슬론, 아이스하키, 컬링, 빙상(쇼트트랙) 등 7개 종목에 선수부, 동호인부로 나뉘어 치러진다.

대회에는 지체 장애, 시각장애, 지적(발달)장애, 청각장애에 선수 650명과 임원 및 관계자 350명 등 총

##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회장 양진석	대표이사 박형인	차재진	사장 민진현	이승배	주필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